철학사입문코스Ⅳ

제4강 라이프니츠의 사상과 계몽사상

제4강 1교시

◆ 스피노자와 라이프니츠의 사상 1

세계 안의 사물들은 유한하다. 그러나 세계 자체는 무한하다. 神=自然(Deus sive Natura)이다. 신=자연은 무한한 양태들(modes)로 자신을 표현한다. 스피노자의 사유에서 중세적 신은 종말을 고한다.

⇒ 이 우주에서 비가 내리고 태양이 뜨고 인간이 태어나고 하는 모든 것이 신이 자기의 양태를 바꿔가고 있는 것이다. **물질 속성의 양태가 변하는 것이 물질적인 변화이고 우리의 모든 생각이 신의 정신 속성이 양태를 바꾸는 것이다.**

재미있는 점은 스피노자의 사유는 대단히 중세적인 것이라는 점이다. 스피노자는 중세철학의 개념으로 중세를 무너뜨린 사람인 것이다.

"신 즉 각각 영원하고 무한한 본질을 표현하는 무한한 속성들로 되어 있는 실체는 필연적으로 존재한다."(pro. 11)

"신 바깥의 어떤 실체도 존재할 수 없고 생각될 수도 없다."(pro. 14) "생각될 수도 없다"는 것은 인간이 생각할 수 없다는 의미도 되지만, 신 바깥에 사유 속성이 존재할 수는 없다는 뜻도 된다.

"모든 존재는 신 안에 존재한다. 신 바깥에는 어떤 것도 존재할 수도 생각될 수도 없다."(pro. 15)

"신은 오로지 자연법칙들에 따라서 활동하며 어느 누구/무엇에 의해서도 제약받지 않는다."(pro. 17)

"신은 만물의 내재적 원인이지 이전적(transitive) 원인이 아니다."(pro. 18)
⇒ 보론에서 전통적인 신 개념에 대한 통렬한 비판이 전개된다.

신학은 부정해도 종교는 긍정. 종교의 본질은 윤리/도덕에 있다고 봄.
⇒ 스피노자는 중세신학을 철저히 부정하지만 종교는 긍정을 한다. 종교의 본질은 중세신학자들의 엉터리 이야기에 있지 않고 사람들을 도덕적으로 행동하도록 만드는 데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종교가 가치를 가지는 유일한 근거는 도덕성에 있다는 것**이다.

www.artnstudy.com

스피노자의 합리주의적 신=자연의 사유는 계몽사상의 중요한 원동력이 된다. 그러나 스피노자의 사유를 범신론, 신비주의, '일즉다(一卽多 = hen kai pan), ... 등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많다.

▲라이프니츠의 사상

라이프니츠는 제작자로서의 신 개념을 보다 정교하게 발전시켰다. **신은 모나드를 만들어서 그것을 물질에 구현시켰다.**
→물질이 등장하기 전에 순수 정신적인 모나드(영혼)를 만들고 그 다음에 거기에 물질을 부여한 것이다. 건축가가 벽돌과 시멘트로 집을 짓기 전에 설계도를 만드는 것처럼 신은 모나드를 만든 것이다.

모나드는 '하나'인 실체이지만 질적 多로서 규정된다.(아낙사고라스와 비교)
→모나드는 하나이지만 단순한 하나가 아니라 그 안에 많은 질quality을 담고 있다. 모나드론은 중세적 창조설의 독특한 해석이다. 질적인 것으로 세계를 설명한다는 점에서 아낙사고라스와 비교가 된다

각각의 모나드는 '빈위들(attributes)'을 내포하고 있다. '정보' 개념과 비교.('공각기동대')

스피노자에게 attributum은 속성이지만 라이프니츠에게 이것은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진다. 빈위는 현대식으로 말하자면 일종의 정보information 개념에 가깝다.

예) 이 우주의 역사를 어떤 컴퓨터에 저장했다고 가정해보자. 거기에 '히스토리'라는 단추를 누르면 여러 나라의 역사 기록들이 펼쳐질 것이다. 그 중에서 로마의 역사. 카이사르의 기록을 누르면 다시 여러 빈위들이 펼쳐질 것이다. 만약 이 슈퍼컴퓨터에서 원래는 이 세계에 존재하지 않았는데 이 빈위들이 모이다가 어떤 새로운 모나드가 형성이 되었다면 이 모나드는 일종의 귀신일 것이다. 영혼만 있고 몸이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귀신이 몸을 얻으려는 이야기가 바로 일본의 애니메이션 작품인 〈공각기동대〉의 내용이다.

▶ 참고자료

제목 : (攻殼機動隊 Ghost In The Shell, 1995)
감독 : 오시이 마모루
출연 : , , 오키 타미오
기타 : 2002-04-12 / 83 / ,SF, / 12 | 관람가

부제는 〈 〉 . 1995 , IG | 공동으

www.artnstudy.com

로 제작하였으며, 2 [士郎正宗 . 감독은 오시이 마모루[押井守 伊藤和典 . 11 |의 파트 가운데 인형사라는 캐릭터와 네트워크 및 정보의 바다에서 발생한 ' ' |라는 주제를 관철할 수 있는 3 .

' ' . 2029 ! 뉴포트(New Port:) . 전세계는 고속의 광대한 정보 네트워크로 연결된 변혁의 시기이다. 인간은 사이보그화된 기계육체를 이용하여 육체의 한계를 벗어나게 되었고, . 정보가 가장 큰 가치로 떠오르게 되면서, 고스트 해킹이 공공연하게 벌어지게 되자 외무부는 프로그램 2501 ( ) ¦ 침입하여 고스트 해킹을 준비한다. 이 과정에서 프로그램인 인형사가 자의식을 가지게 되면서 생명을 요구하게 되는데, .

빈위들은 순서대로 펼쳐진다.('프로그램'과 비교)
⇒ 라이프니츠의 세계에서는 이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개별자들이 신이 만든 프로그램들이다.

각 빈위들은 서로를 함축한다.
⇒ 이 세계에서의 모든 관계들은 모두 상호 함축되어 있는 것이다. 지금 이 우주에 함께 존재하는 모든 관계들은 이미 modulate되어 있는 것이다.

우주는 거대한 조화이다. '공가능성(compossibility'의 개념. **공가능한 것들의 한 총체가 하나의 '가능세계'를 이룬다.**
⇒ 지금 이 세계가 W1이라면 W2, 즉 세계2는 하나의 빈위가 나와는 다른 내가 존재하는 세계이다. 그러한 세계가 무한히 존재하는데 이 세계를 가능세계possible world라고 한다.

신은 그 중 가장 좋은 가능세계를 창출했다.('낙천주의')
→기준은 'multiplicité'와 'simplicité'.

그렇다면 신이 이 세계를 무한히 설계했는데 왜 하필 지금 이 세계에만 물질을 부여해서 현실로 만들었는가 하고 질문할 수 있다. 라이프니츠는 지금 이 세계의 설계도를 신이 가장 마음에 들어해서 그렇다고 설명한다.⇒ **라이프니츠의 낙천주의**

중세적 신념을 근대적 사유로 표현. 아이디어는 매우 신선하고 흥미로움. 신과 인간의 관계를 인간과 기계의 관계로 이전시켰을 때 매우 시사적.

⇒ 라이프니츠가 신과 인간을 놓고 설명한 이야기를 인간과 기계에 대입하면 거의 완벽하게 들어맞는다. 라이프니츠의 의도 자체가 제작자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www.artnstudy.com

철학사입문코스Ⅳ

제4강 2교시

▲전통의 파괴(계몽사상)

영국 경험론자들은 인식의 근거를 '경험'에 두었다. 사실상 지각에 해당한다.(좁은 경험 개념이 넓혀지는 과정이 그 후에 펼쳐짐)

⇒ **영국 경험론자들이 말하는 경험은 사실은 지각perception이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19세기 이래의 경험주의적 전통은 경험을 존중한다는 경험론자들의 생각을 일단은 받아들이면서도 이들이 지나치게 편협하게 정의한 경험개념을 좀 더 심화시켜 나가는 과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만약 정당한 인식의 근거를 경험에 둔다면 중세철학의 주요한 요소들 중 하나인 보편자들이 무너지게 된다. 다만 형식과학으로서의 수학과 논리학만 인정을 하게 된다.

예) 나는 뽀삐나 멍멍이를 보는 것이지 개라는 보편자를 보는 것이 아니다. 나는 철수나 영희를 보는 것이지 안간이라는 종 자체를 볼 수는 없다.

그 결과 무한이 사라지게 된다. '존재와 사유의 일치'가 무너짐. 지각에서만 성립. 'representation'의 의미가 좁아짐. 표피적인 표상만 가능.(독일어 'Vorstellung')

⇒ **무한의 철학이 경험론이 등장하면서 사라지게 된다**. 무한론 대신 유한의 철학이 등장한다. 이는 학문적 발전인 동시에 심리적 불안의 요인이 된다. 이것을 좀 더 이론적으로 말해서 존재와 사유의 일치가 무너지게 된다.

존재와 사유의 일치는 이제 표면surface에서만 가능해지게 된다. 즉 내 지각과 사물의 표면에서의 일치만 인정이 된다. 미셸 푸코는 가시성visibility 개념으로 이를 설명한다. 즉 가시성이 고전 시대를 지배했다고 본다.

지각의 결과가 '관념들(ideas)'이다. 관념들의 결합은 인정. 'mind'의 활동을 탐구.
⇒ 지각의 결과는 관념들이고 내가 사물을 지각해서 그 결과 내 마음에 맺힌 것이 아이디어이다. 영국 경험론자들에게 아이디어와 이미지는 거의 같은 말이다.

경험주의적 원칙을 지키면 신도 부정할 수밖에 없음. 그럼에도 신앙적 차원에서는 유지. 사유에서의 모순이 나타남.
⇒ 경험주의 원칙을 지키면 신을 부정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경험론자들은 이론적으로는 경험만 이야기하는데도 신을 믿는 이중성을 가지기도 한다.

www.artnstudy.com

프랑스 계몽사상(좁은 의미)을 주도한 ‘philosophes’은 철저한 유물론/기계론적 세계관과 감각주의 인식론을 발전시켰다.

1) 데카르트에서 신, 영혼을 버리고 기계론을 일반화(엘베시우스, 돌바크, ...).(근대 철학사에 대한 오해)
2) 인식을 철저하게 감각에 기초지움(꽁디악).
3) ‘앙시엥 레짐’을 타파(몽테스키외, 볼테르, 루소).
4) ‘계몽’을 널리 펼치다(디드로, 달랑베르의 『백과전서』).
5) 헬라스 형이상학과 유태-기독교 종교로 이루어진 전통이 무너짐. →본격적인 근대 사회가 형성되기 시작.

▲전통의 근대적 복권(독일 관념론)

독일은 유럽의 후진국이었고 또 독일 관념론이 전개된 시대는 이른바 ‘반동기’였기 때문에 비교적 보수적인 철학이 전개된다. 긍정적으로 보면, 헬라스-중세 전통과 근대적 전통을 종합했다고도 할 수 있다.
→액면 그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근대적인 사고를 섭취하면서도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 같은 복고적인 철학을 펼치게 된다.

칸트는 우리가 알 수 있는 차원과 알 수 없는 차원을 구분했다.
→현상계phenomenon는 알 수 있고 본체계(물자체Ding an sich의 세계)는 알 수 없다고 봄. 세계의 근원, 영혼의 존재, 신의 존재에 대한 사유는 ‘이율배반(Antimonie)’에 빠진다.

그러나 실천적 차원에서는 물자체의 세계를 신, 영혼, 자유의 차원으로 ‘요청’할 수밖에 없다고 보았다. 도덕의 근거로서 이론적 형이상학을 포기하고 실천적 형이상학을 마련. 형이상학이 정신세계의 문제가 되는 계기.

⇒ 우리는 신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지만 신이 있다고 **요청**을 해보자는 것이다. 그것이 우리의 도덕적 삶을 근거 지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본 것이다.

『순수이성비판』과 『실천이성비판』의 골을 메우기 위해 『판단력비판』을 씀. 유기체 및 심미성에서 발견되는 ‘합목적성(合目的性)’에서 단초를 찾음.

⇒ 칸트는 판단력 비판에서 현상계와 물자체를 연결시켜주는 실마리를 **유기체/생명체**에서 찾는다. 유기체는 분명 기계론적인 개념으로 설명이 되지만 그것만으로 이야기하기에는 너무나 목적론적이라는 것이다. **아름다움, 심미성**이라는 것은 본체계와 현상계를 이어줄 수 있는 실마리가 된다. 이런 것들을 통해 합목적성을 찾아내고 **합목적성**을 통해서 두 세계를 연결시키려고 한다.

칸트 이후 피히테, 셸링, 헤겔은 칸트보다 더욱 과감하게 형이상학적 가설들을 펼쳤다. 오

www.artnstudy.com

히려 과거로 회귀. 그러나 근대적 형태도 띠고 있어 단순 회귀가 아님. 이상주의(理想主義)를 전개.

▲역사의 회귀(제국주의와 서구화)

지식세계의 시계와 일반 사회는 다르다,

예) 양자역학은 지식세계에서는 상식이지만 일반 사회에서는 잘 이해되고 있지 못하다.

대중의 시계는 다르다.
→철학사는 이미 탈근대에 들어섰지만 여전히 중세적 이념은 남아 있다.

18, 9세기에 힘을 키운 서구 부르주아 세력은 해외 시장에 눈을 돌리고 제국주의 시대가 도래한다. 과학과 민주주의를 내세워 비서구 지역을 서구화한다.

아울러 선교사들의 전도가 펼쳐짐. 서구에서 몰락한 중세적 이념이 비서구 지역에 이식되는 아이러니가 발생.

→한국이 대표적인 예. 철저한 계몽의 역사를 거치지 않음.

www.artnstudy.com